

롯데홈쇼핑, 콘텐츠 커머스 플랫폼 확대
초록캠미디어에 250억 원 전략적 투자

롯데홈쇼핑이 콘텐츠 제작사 초록캠미디어에 250억 원을 직접 투자하며 콘텐츠 커머스 플랫폼 확대에 나섰다. 초록캠미디어는 종합 콘텐츠 미디어기업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 제작, 판매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초록캠미디어에 250억 원을 직접 투자해 최대 주주인 초록캠컴퍼니에 이어 2대 주주 지위를 확보했다. 양사는 협업을 통해 콘텐츠 플랫폼 확장, 콘텐츠 지적재산권(IP) 사업 등 전략적 투자 검토와 신규 사업 발굴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롯데홈쇼핑은 초록캠미디어가 추진하는 드라마 공동 투자 및 제작도 지원한다. 드라마 원작 기반의 웹툰, 웹소설 등 판권사업 개발과 투자에도 나선다. 롯데홈쇼핑 모바일 앱에서 드라마·예능 콘텐츠 스트리밍 채널 열플레이를 론칭하고, 유명 셀럽을 활용한 셀럽 커뮤니티 플랫폼도 선보일 계획이다. 또 초록캠미디어 계열사 소속 아티스트와 연계한 인플루언서 콘텐츠도 확대한다.

이상용 롯데홈쇼핑 신규사업팀장은 “미디어커머스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신사업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며 “양사가 보유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콘텐츠 사업영역 확장 등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건강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강화

“비수술 우선, 환자별 맞춤형 치료 제공”
척추관절건강 지키는 연세고든병원 개원



최현민 대표원장

척추관절 질환의 비수술을 목표로 환자별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연세고든병원이 22일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에 개원한다.

신경외과와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영상의학과, 마취과 전문의의 협력진료 시스템을 구축한 연세고든병원은 의료진간의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목디스크, 허리디스크를 비롯해 요추, 어깨, 무릎, 손목 등 일상 속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통증과 관련 질환에 대한 치료를 진행한다.

더욱 정밀한 진단을 통한 정확한 치료를 위해 원내에 엑스레이, MRI 등 대학병원급 최신형 검사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내원 시 거동이 다소 불편한 환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대규모 주차장은 물론 아낌없는 투자를 통해 환자들에게 보다 편안하고 편리한 고품격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연세고든병원의 최현민 대표원장은 “항상 환자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최소의 치료로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한 덕분에 지금까지 만난 환자 중 95%는 물리치료 등 비수술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고 일상으로 복귀했다”며 “환자와 의사는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목표를 함께하는 한 팀이다. 앞으로도 질환을 넘어 환자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존중하고 소통하며, 환자의 소중한 건강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한결같이 끈은 마음, 끈은 진료로 모두의 든든한 평생 주치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이재용 부회장, 모더나·버라이즌 경영진과 잇달아 회동

‘바이오’ ‘차세대 통신’ 미래 먹거리 협력 강화

‘뉴 삼성’ 위한 본격적인 경영행보 모더나와 백신 생산 협력방안 논의 세포 치료제 CDMO에도 진출 예정 6G 등 차세대 통신 선행연구 주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미국에서 현지 기업인들과 연이어서 만나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이 부회장(왼쪽)과 뉴바 이페인 모더나 공동 설립자 겸 이사회 의장(왼쪽 사진), 이 부회장과 한스 베스트베리 버라이즌 CEO.



미국을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현지 기업인들과 연쇄 회동을 가졌다. 이 부회장은 미국 제약사 모더나와 이동통신기업 버라이즌의 경영진과 연이어서 만났다. 8월 출소 후 조심스런 행보를 보여 온 이 부회장이 본인이 구상한 ‘뉴 삼성’을 위한 본격적인 경영행보에 나섰다. 특히 ‘바이오’와 ‘차세대 이동통신’ 등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분야의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 ‘제2의 반도체’ 바이오 시동

이 부회장은 먼저 16일(이하 현지시간) 매사추세츠주 캠브리지에서 뉴바 이페인 모더나 공동 설립자 겸 이사회 의장과 만났다. 백신 생산과 바이오사업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5월 모더나와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만남은 삼성의 바이오 사업 강화 전략과도 맥을 같이 한다. 삼성은 8월 240조 원 규모의 투자를 발표하면서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한다”는 밑그림을 내놨다. 팬데믹 이후 바이오산

업을 ‘고부가 지식산업’을 넘어 ‘국가 안보산업’으로 바뀌었고, 바이오 생산시설 여부가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면서 관련 사업을 강화한다는 전략을 공개했다. 실제로 삼성은 바이오 사업 시작 9년 만에 CDMO(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공장 3곳을 세웠다. 현재 건설 중인 4공장이 완공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산능력(CAPA) 62만 리터로, CDMO 분야 세계 1위에 올라선다. 바이오시밀러를 담당하는 삼성바이오에피스는 10번째 제품이 임상에 돌입했고, 이미 5개 제품을 글로벌 시장에 출시했다.

삼성엔 향후에도 바이오 분야에 공격적인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다. CDMO 분야에선 5공장과 6공장을 건설해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생산 허브로서의 위치

를 공고히 하고, 바이오의약품 외에 백신 및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차세대 치료제 CDMO에도 새롭게 진출할 예정이다. 바이오시밀러도 파이프라인 지속 확대 및 고도화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바이오 사업으로 ‘제2의 반도체 신화’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삼성의 구상이다.

● 차세대 이동통신도 주도

17일에는 뉴저지주 버라이즌 본사에서 버라이즌의 한스 베스트베리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들과 만남을 가졌다. 이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와 관련한 협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버라이즌과 이동통신 사업에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특

히 지난 해 7조9000억 원(66억4000만 달러) 규모의 네트워크 장비 장기 공급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는 한국 통신장비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수출 계약이다.

‘차세대 이동통신’도 삼성전자가 꼽은 미래 성장 동력 중 하나다. 지난 투자 발표에서는 5G 이후의 ‘Beyond 5G·6G’ 통신에서 리더십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달성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통신 기술 선행연구를 주도한다는 전략이다.

한편, 이 부회장이 해외 출장에 나선 것은 8월 가석방으로 출소된 뒤 처음이다. 미국을 방문한 것은 2016년 이후 5년 만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SK하이닉스 “EUV장비 중공장 도입은 시기상조”

“아직 시간 많이 남아...국내 도입 먼저”

SK하이닉스가 중국 우시 공장 첨단화 계획이 미·중 갈등으로 좌초할 수 있다는 분석을 제기한 외신 보도에 대해 “장비 도입 계획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부인했다.

SK하이닉스는 경기도 이천 공장과 중국 우시 공장 등에서 D램을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외 생산 공장에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의 최신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도입해 생산 공정 효율을 높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EUV는 최근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주목 받는 초미세공정의 핵심 기술이다. 적은 시간에 더 많은 양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특징이다.

하지만 18일 로이터통신은 “미국 정부가 중국의 군비 강화를 견제하기 위해 EUV 노광장비 등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반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SK하



SK하이닉스 중국 우시 공장. 사진제공 | SK하이닉스

이닉스가 중국 우시 공장에 EUV 노광장비를 배치하려는 계획이 미국 정부의 제동으로 좌초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SK하이닉스 측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놨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EUV 노광장비 도입은 아직 국내에서도 초기 단계이고, 중국 공장 도입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다”며 “중국 공장에도 안착가는 EUV 노광장비를 도입하겠지만 국내 도입이 먼저다. 현재로서는 장비 도입 문제를 논하기가 매우 이르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iy@donga.com

네이버, ‘81년생 최수연 CEO’ 파격인사

“장기적인 변화 도모 가능한 후보”



최수연 네이버 CEO 내정자

‘MZ’세대가 네이버를 이끈다. 글로벌 전진기지로서 네이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네이버 이사회는 글로벌 사업 지원 책임자 최수연 책임자를 최고경영자(CEO)로 내정했다. 또 김남선 사업개발·투자·인수합병(M&A) 책임자를 최고재무책임자(CFO)로 선임했다.

최 선임 CEO 내정자는 1981년생이다. 서울대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2005년 네이버(당시 NHN) 신입사원이 됐다. 네이버가 인터넷 업계 1위로 올라서며 가파른 성장을 하는 동안 커뮤니케이션과 마케팅 조직에서 근무했다. 이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윤촌에서 변호사로 근

무했으며, 하버드 로스쿨을 거친 뒤 2019년 네이버에 다시 합류했다.

최 내정자는 내년 3월 주주총회 승인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차기 대표로 선임될 예정이다. 이사회는 “그동안 최 내정자가 다양한 국내외 사업 전반을 지원하며 보여준 문제해결 능력, 회사의 글로벌 사업 전략 및 해당 시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춘 점을 높이 평가했다”며 “회사에 대한 안팎의 균형 잡힌 시각을 견지하며 장기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후보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남선 CFO 내정자는 지난 해 네이버에 합류한 뒤 왓패드 인수, 이마트·신세계와의 지분 교환 등 빅딜을 주도했다.

한편, 한성수 대표를 포함한 기존 경영진은 내년 3월 임기까지 업무 인수인계를 돕고, 이후에도 네이버가 글로벌 도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김명근 기자

뇌가 색시해지는 하루 두뇌게임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위 정사각형 안에는 1~9까지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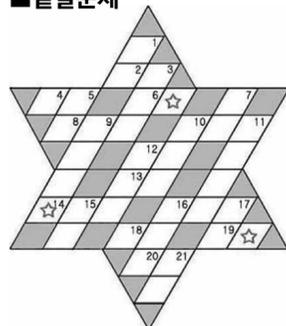
■ 스토쿠문제

		7	3	2				
			6		7	9		
6	1		9					3
	7		9		3		5	
1	3				6		9	
	6		2		8		3	
7				8				4 5
		1	5		9			
		6	4	3				

■ 스토쿠정답

2	6	8	1	7	9	5	8	3
8	9	7	6	2	9	1	7	8
9	7	1	9	8	6	2	7	4
7	8	7	8	1	2	5	9	6
6	2	9	5	7	7	8	1	4
1	9	8	8	9	6	2	7	3
8	7	9	2	6	8	7	1	9
7	1	6	7	5	9	8	8	2
9	8	2	7	8	1	7	6	9
9	6	8	9	2	8	7	1	5
7	8	7	1	9	6	8	2	9
5	2	1	7	8	6	9	5	1
2	7	8	7	6	9	5	8	1
8	7	9	2	1	9	6	8	7

■ 날말문제



■ 가로열쇠

02. 하나뿐인 아들. 04. 어떤 사실을 마땅하다고 인정함. 06. 남에게 빚을 갚. 08. 자기 자신을 뽑내고 잘난 척 하는 마음. 10. 물을 흡여서 뿌리는

기구. 12. 어떤 일이나 사람이 생겨 남. 13. 남의 비위를 맞추어 알랑거림. 14. 장수가 올라서서 지휘할 수 있도록 산성의 서쪽에 높이 만들어 놓은 대. 16. 배가 고프는 느낌. 18. 오고 감. 19. 어떤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로 나타나게 함. 20. 어떤 일을 해 나가는 데 가장 알맞은 시기나 경우.

■ 세로열쇠

01. 책이나 신문 등을 사서 읽음. 03.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능력을 믿고 당당히 여기는 마음. 05. 이웃 또는 이웃 나라와의 교제. 07. 음험하고 흉악한 손길. 09. 사연을 많이 담은 긴 편지. “오지 장오” 10. 죽이고 살릴 사람의 이름을 적어 둔 명부. 11. 일이 뜻대로 잘

■ 날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날말을 모두 풀 다음 ☆ 칸을 이어놓으면 여러분 이 잘 아시는 스타 이름이 됩니다.

